KIA, 내년 시즌 반등 '좌우 날개' 재편에 달렸다

'박찬호 빈자리' 내야 재편 맞물린 외야 보강 고심

철벽 중견수 대비 양쪽 날개 불확실성 상존…백업 카드 '만지작'
나성범 'DH 활용 가능성'…우익수 운용 상황별 선택지로 남아
새 외국인 타자 '외야 수비 필요 충분 조건' 고려, 최적 조합 구상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오프시즌 구상은 내년 팀 전반의 전력 구성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그 중에서도 내·외야를 막론한 수비 체계 정비는 시즌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올 시즌 리그 8위에 머문 KIA는 2년 연속 실책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수비에서 누적된 약점이 마운드 불안을 키웠고, 이는 곧 시즌 레이스 전체를 흔든 요인이 됐다. 다음 시즌 반등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수비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구단은 주전 유격수 박찬호의 공백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으며, 아시아쿼터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내야 수비가 팀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떠오른 가운데, 외야 역시 재편 대상에 포함됐다.

외야는 단순히 타구를 처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주자의 진루와 실점 흐름을 끊으며, 경기의 리듬을 조절하는 기능까지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외곽 수비 라인은 내야의 불안정성을 일정 부분 보완해온 장치였다.

올 시즌 KIA 타이거즈 외야 기본 축은 중견수 우익수 라인이었다.

중견수 김호령은 넓은 커버 영역과 기동력을 바탕으로 후방 전반을 조율했고, 우익수 나성범은 송구 판단과 주루 차단에서 뚜렷한 역할을 수행했다. 두 선수는 보살 부문에서 리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팀 실점 관리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다만 나성범은 시즌 중 부상 여파로 출전 경기 수가 제한됐고, 좌익수 또한 끝내 고정 멤버를 확정하지 못한 채, 젊은 자원들의 기용과 점검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중견수를 제외한 양쪽 날개는 안정적인 운용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내년 시즌에는 이 외야 조직이 어떤 그림을 그릴까. 먼저 우익수 쪽에서 변화의 신호가 읽힌다.

최형우의 이적으로 지명타자(DH) 운용에도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출장 조절이 필요한 나성범과 김선빈의 DH 병행 활용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백업 자원들의 출전 비중이 더 늘어날 여지가 생긴다.

김호령

나성범 〈KIA 타이거즈 제공〉

이에 따라 '우익수가 누구냐'는 단순히 공백 보완을 넘어 외야 수비 안정성과 직결되는 변수로 떠올랐다. 캐치 능력과 기동력은 후방의 커버 구간을 형성하는 개별 요소다.

나성범이 강한 어깨를 지녔다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수비 반경이 다소 좁아졌다는 평가가 따른다.

경기 양상에 따라서는 빠른 송구보다, 그 이전에 타구를 끊어내는 수비가 더 요구되는 장면도 나타난다. 투입되는 선수에 따라 수비 완성도의 결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백업 카드가 빠르게 확정되지 않을 경우, 우익수는 경기 상황과 상대 타선에 따라 출전 자원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좌익수 자리는 새 외국인 얼굴이 후보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타격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지만, 외야 수비 구조의 균형을 좌우하는 만큼 중요한 지점이다.

수비 성향과 처리 능력에 따라 후방 전체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좌측 커버 폭이 바뀌면 중견수의 대응 방식에 영향을 주고, 이는 반대편 우익수의 백업 위치와 송구 판단으로 연결된다. 외야 수비는 각 자리가 따로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범위가 맞물리며 작동한다.

이 같은 변화는 한쪽의 역할이 달라질 경우 외야 전체의 커버 구조도 함께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특정 포지션 하나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후방 운영 전반을 다시 짜야 하는 과정으로 확장된다.

결국 외야 수비의 관건은 누가 좌우 날개를 맡느냐, 그리고 그 조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다. 좌익수와 유격수 보강이라는 큰 틀 속에서, 외야 역시 수비 안정감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가 새 시즌 KIA의 전력 구성을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주홍철 기자

서서아, 세계여자9볼 선수권 우승

〈전남당구연맹〉

김가영 이후 13년 만의 쾌거

서서아(전남당구연맹)가 한국 선수로는 13년 만에 세계 포켓볼 정상에 섰다.

세계랭킹 6위 서서아는 지난 22일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열린 2025 세계 여자 9볼 선수권대회 결승에서 크리스티나 트카흐(러시아·세계랭킹 3위)를 세트 점수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에 오른 것은 2012년 김가영 이후 13년 만의 쾌거다.

앞서 열린 4강에서 앨리슨 피셔(미국)를 3-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오른 서서아는 지난해 세계 여자 10볼 선수권 결승 패배를 안겼던 트카흐를 상대로 설욕전을 펼쳤다.

결승전은 마지막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명승부였다.

서서아는 1세트를 먼저 따냈으나, 이후 두 세트를 내리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다.

그러나 4세트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경기는 마지막 5세트 승부치기로 이어졌다.

승부치기에서 두 선수는 네 차례씩 성공과 실패를 주고받는 접전을 벌였다.

승패는 다섯 번째 시도에서 갈렸다.

트카흐가 실패했고, 서서아는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긴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 인도네시아 10볼 오픈과 스페인 10볼 오픈에서 우승한 서서아는 이번 대회까지 제패하며 국제대회 3회 우승을 달성, 2025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었다.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서서아는 24일부터 대전드림아레나에서 열리는 생활체육·전문체육 통합 축제 '빌리어즈 페스티벌 2025'에 참가해 국내 팬들과 만난다.

/연합뉴스

포켓볼 9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서서아 〈대한당구연맹 제공〉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김지혜·박종선·이승후

두바이 유스패러게임 전원 메달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김지혜(육상), 박종선(역도), 이승후(배드민턴)가 2025 두바이 장애인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아시안유스패러게임)에서 값진 메달을 수확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2025 두바이 아시안 유스패러게임'은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PC)가 주최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대회로 아시아 45개국 1천3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대회에 육상, 역도, 배드민턴 3개 종목에 3명의 선수가 참가해 전원 메달을 획득, 광주 장애인전문체육 위상을 드높였다.

육상에 출전한 김지혜(한국광기술원)는 두바이 장애인스포츠클럽에서 열린 여자 원반던지기 20세 이하 F13에서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포환던지기와 창던지기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역도 박종선(한전 KPS)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파워리프팅 -59㎏ 뉴제너레이션(13-21세)에서 141㎏을 들어 올리면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역도 박종선

배드민턴 이승후

배드민턴에 출전한 이승후(전대사대부고 1학년)는 SL3 단식과 복식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은 "국가대표로서 미래의 꿈을 향하는 빛고을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체육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양궁, 육상, 배드민턴, 보치아, 골볼, 역도, 수영, 태권도, 탁구 등 총 9종목에 88명(선수 46명, 임원 42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13, 은8, 동5 등 총 2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선수단은 두바이 아시안유스패러게임에서의 메달 26개 성과를 바탕으로 2028 로스앤젤레스 패럴림픽을 향한 중장기 목표를 재확인했다.

/박희중 기자

'2025 두바이 아시안 유스패러게임' 육상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포환던지기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며 대회 3관왕을 차지한 김지혜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입단한 송성문 〈키움 히어로즈 제공〉

송성문, MLB 샌디에이고 입단

"나 같은 선수가 이런 대우를…후비들에게 동기되길"

미국 무대 진출에 도전했던 송성문(29)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입단이 공식 발표됐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는 23일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KBO리그 스타 송성문과 4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금액 등 세부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22일 AP통신은 송성문의 계약 규모를 1천500만달러(약 222억원)라고 보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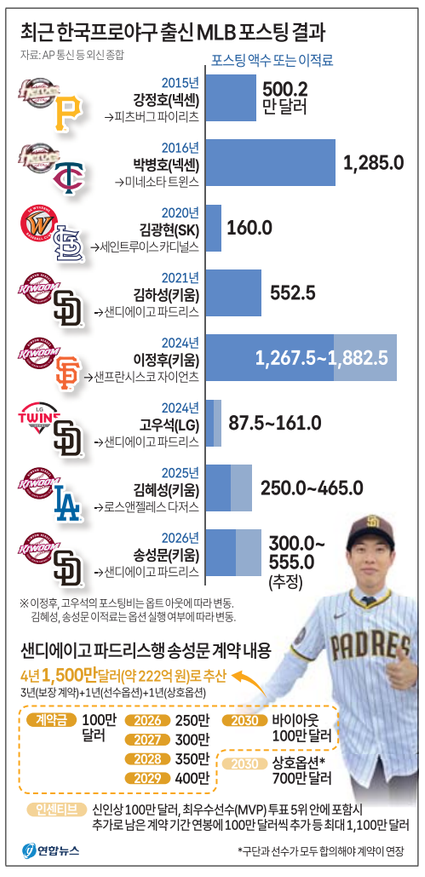
2025시즌까지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한 송성문은 이로써 2026시즌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고 '빅 리그'에서 뛰게 됐다.

2025시즌 타율 0.315, 홈런 26개와 도루 25개, 90타점의 성적을 낸 송성문은 지난달 포스팅 절차에 돌입하며 협상을 벌여왔다.

포스팅 마감 시한은 22일 오전 7시였으며 샌디에이고와 송성문은 마감 이전에 계약을 마친 뒤 이날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포스팅 절차를 거쳐 미국 무대에 진출한 KBO리그 출신 선수는 2009년 최향남을 시작으로 2012년 류현진, 2014년 강정호, 2015년 박병호, 2020년 김광현, 2021년 김하성, 2023년 이정후, 2024년 고우석, 2025년 김혜성에 이어 송성문이 10번째다. 이 가운데 야수는 모두 히어로즈 출신들이다.

샌디에이고와 계약하고서 23일 귀국한 송성문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미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었겠나. 나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계약 내용에 만족한다. 명문 구단 샌디에이고에서 뛸 수 있다는 건, 무척 영광이다. 100점짜리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송성문은 "나 같은 선수가 이런 대우를 받고 미국으로 향한다. 노력하고, 인내하니 이런 좋은 날이 오더라"라며 "후배들에게 동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연합뉴스